【특 집】

「万宝山」, 농민문학과 개척문학

유 수 정*

차 례

1. 머리말
2. '만보산 사건'에 관한 보도와 언설
3. 「만보산」의 이토 에이노스케와 『개간』의 장혁주
4. 농민문학 「만보산」과 개척문학 『개간』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만보산 사건 관련 언설 중 일본문단에서 생산된 소설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문학작품에는 이토 에이노스케(伊藤永之介)의 단편소설「만보산(万宝山)」(1931.10)과 장혁주(張赫宙)의 장편소설 『개간(開墾)』(1943.4)이 있다. 만보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일본어소설 「만보산」과 『개간』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하나는 농민문학, 또 다른 하나는 개척문학으로 분류된다. 작가가 어떠한 동기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사건'(사실)을 재해석하고 서사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근저에 깔린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만보산 사건을 형상화하는 문학적 담론들을 이해하고 '사건'과 표상을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만보산 사건이 일본 문학에서 어떻게 서사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만보산 사건이 일본에 보도된 몇 가지 예를 신문잡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만보산」과 『개간』의 작가들이 어떠한 행보를 거쳐 어떠한 문단적 상황 하에서 각각의 작품을 창작하였고 어떻게 서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작가가 어떠한 동기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재해석하고

www.kci.go.kr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서술하였는지, 그리고 근저에 깔린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프롤레타리아문학 단체들의 전성기에 단체 중앙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식민지문제를 다루면서 일본과 조선 농민들의 연대를 지향하면서도 후쿠모토식의 계몽적 계급의식이 아니라 농민들에 의한 농민들의 문학을 이상으로 했던 이토 에이노스케는 이중으로 고통 받는 만주의 조선인들을 일본제국주의 고발을 통해 그려냈다.

식민지 출신으로 일본 중앙문단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던 장혁주는 조선인으로서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제국 안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였고, 이를 만주를 통해 그리려 하였다. 그러한 모색을 통해 획득된 장혁주의 시선이 이토 에이노스케가 '만보산 사건'을 바라 보는 그것보다 더 제국적인 것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굴절된 것이지만, 이 역시도 역사의 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만보산 사건, 이토 에이노스케, 장혁주, 만보산, 개간, 농민문학, 개척문학

1. 머리말

만보산 사건은 31년 7월초 중국 창춘(長春) 부근 만보산(萬寶山) 지역에서 조선농민과 중국농민 사이에 일어난 충돌 사건으로 조선에서는 이를 전하는 기사에 선동되어 재한화교(在韓華僑) 습격 폭동까지 일어난다. 소위 '만보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소동은 박영석의 연구『만보산 사건 연구』(1978)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우연히 일어난 단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만주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지배권 쟁탈전 속에서 만주의 조선농민 보호를 빌미 삼아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전략의 한 예였다. 사후는 조선,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제를 당부하고 수습에 나서 사태는 진정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외교적 해결은 흐지부지 되었고, 이후 사건의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중일이 각각의 입장에서 본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www.kci.go.kr

만보산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적 시점에서 만보산 사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 일본, 중국의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페디아(Wikipedia)[1]에서 '만보산 사건'을 각각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개요로 시작한다. 우선 한국어판 위키페디아의 설명이다.

>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2일에 중국 만주 지린 성(吉林省) 창춘 현(長春縣) 싼싱바오(三姓堡) 만보산 지역에서 일본의 술책으로 조선족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수로(水路) 문제로 일어난 충돌 및 유혈사태이다.

이어서 같은 항목을 일본어판과 중국어판으로 각각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2일 만주 내륙에 위치한 창춘의 북쪽 싼싱바오(三姓堡) 만보산에서 중국인농민이 수리 이해관계를 이유로 조선인농민을 습격해 조중(朝中) 간 분쟁이 일어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 일본 경찰관도 합세해 충돌을 일으킨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반도에서 중국인을 배척하는 폭동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를 냈다. (원문 일본어)

> 만보산 사건은 1931년 9.18사변 전, 일본의 책동으로 발생한 조중 충돌사건으로, 동북3성을 점령하기 위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일으켰다. (원문 중국어)

한국과 중국의 서술은 '일본의 술책', '일본의 책동', '여론조작'이라는 사

1)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 그 때문에 악의적인 편집과 부정확한 내용, 내용의 질, 책임성과 권위의 부족 등을 거론하며 백과사전으로서의 지위에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방면의 지식들이 방대한 분량으로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며 접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로 애용되고 있다. 2001년 1월 15일 시작되었고 전세계 200여 개 언어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2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지식 보다는 대중적 지식,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위키페디아를 참고로 하였다. 2011년 5월 7일 확인.

실이 강조된 반면, 일본의 경우는 그러한 기술은 없고 조선에서 일어난 배화(排華) 사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일에서 보는 '만보산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각각의 시각(perspective)에서 다르게 서사(敍事 : narrative)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비단 국가/민족 단위의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시의 사건을 일차적으로 보도하는 신문기사, 현지를 방문한 저널리스트 또는 문학자가 남긴 잡지의 기사·수기, 사건이 문학으로 담론화된 소설들,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관련 연구들 등 만보산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언설들이 생산되지만, 서술 시점(視點/時點)은 물론 매체 간 그리고 서술 주체에 따라 서사 방식, 나아가 사실관계까지도 다르게 기술되기도 한다.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문제는 그 텍스트를 생산한 개인의 의식 구조, 나아가 이를 더욱 확장하면 그가 속한 세계의 구조를 드러낸다. 소설 역시 한 작가 개인이 창조해낸 세계임과 동시에 그가 속한 한 시공간, 사회와 문화적 문맥 속에서 탄생한 텍스트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만보산 사건 관련 언설 중 일본문단에서 생산된 소설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문학작품에는 이토 에이노스케(伊藤永之介)의 단편소설 「만보산(万宝山)」(1931.10)과 장혁주(張赫宙)의 장편소설 『개간(開墾)』(1943.4)이 있다. 만보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일본어소설 「만보산」과 『개간』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하나는 농민문학, 또 다른 하나는 개척문학으로 분류된다. 작가가 어떠한 동기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사건'(사실)을 재해석하고 서사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근저에 깔린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만보산 사건을 형상화하는 문학적 담론들을 이해하고 '사건'과 표상을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만보산 사건이 일본 문학에서 어떻게 서사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만보산 사건이 일본에 보도된 몇 가지 예를 신문기사와 잡지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만보산」과 『개간』의 작가들이 각각 어떠한 행보

www.kci.go.kr

를 거쳐 어떠한 문단적 상황 하에서 각각의 작품을 창작하였고 어떻게 서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이들 작품이 갖는 일본문학사적 위치와 의미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만보산 사건'에 관한 보도와 언설

1931년 7월 4일『도쿄 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1면에 "만보산 형세 악화" 기사가 실렸다. 7월 2일 중국 동북지방 창춘(長春) 근교 만보산 일대에서 조선인농민과 중국인농민이 충돌한 만보산 사건에 대한 보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만보산 사건에 대한 보도는 대대적인 충돌사건 발생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6월 중순에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보고되고 있다.『오사카 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6월 15일자에는 13일에 펑톈(奉天) 특파원이 전보로 보낸 내용을 토대로 '우리 경관(警官) 기관총을 휴대하고 만보산으로 급행(急行)'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6월 15일자 기사에서는 "만보산의 조선농민 압박문제에 대해 다시로(田代) 창춘영사는 하야시(林) 펑톈 총영사의 지시에 따라 조선농민을 현지에서 절대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되며 중일간의 합법적 계약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라고 하는 한편, "조선농민 보호를 위해 우리 경관 60여명은 기관총을 휴대하고 13일 밤 또는 14일 아침에 현장으로 출동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7월 2일에 충돌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었고, 일본측은 조선농민의 신변보호 보다는 '당연한 권리 행사'를 위해 현지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파악된다. 긴박한 만주 정세, 압박 받는 조선인, 제국신민=조선인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로서의 무력행사라는 일본측의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반복적인 보도는 만주에서 일본이 병력을 확충하기 위한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만주사변에서 만주국건국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만주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 국내 여론형성

www.kci.go.kr

과정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다시 7월 4일자 『도쿄 아사히신문』을 보면, '각지에서 내몰린 조선농민의 유일한 활로—사건 뒤에 움직인 중국관헌의 손 / 만보산은 이런 곳'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 즉 쇼와(昭和) 2년(1927년 : 역자주) 이후 대두되어 온 만주 각지에서의 조선농민에 대한 중국측 관헌의 압박은 작년 9월 이후로 더욱 공격이 심해지고, 천애고아 마냥 내몰리고 학대 받던 이들 조선 농민은 어디가 되었든 안주할 땅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유일한 특기인 수전 경영에 적합한 습지를 물색한 결과, 마침내 만보산자락 2천 천지(天地) 개간을 계획해 올해 2월 현지 측량에 착수, 수리, 토질 및 시장 관계 등에서 이상에 가까운 토지가 될 것을 발표해 안주(安住)의 땅으로 정하고, 중국 유지와 360천지를 앞으로 10년간 차지(借地)하는 (…중략…) 합법적 차지권(借地權) 계약을 체결했다.
>
> 그렇게 하여 각지에서 내몰린 조선농민은 생각지도 않던 만보산자락에 모였고 그 수가 2백여 명에 달했다.

기사는 만보산 지역에 대한 설명과 사건 개요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사 서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조선농민과 중국농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②만보산은 수전농사에 최적인 미개간지이다 ③개간 이후 2만석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는 땅이지만 중국농민들은 관심이 없고, 일부 중국농민은 (조선농민에 의한) 개간을 환영한다 ④중국측이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재만조선인이 일본 만주정책의 전위(前衛)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⑤조선농민이 만보산지역에 들어가게 된 경위 (인용) ⑥만주 각지에서 조선농민 2백여명이 모여 수로공사에 착수했지만 5월 하순에 갑자기 중국관헌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고 조선농민들은 창춘영사관에 보호를 호소했다 ⑦중국농민들은 수로공사에 반대하여 조선농민 퇴거를 중국관헌에 요구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 ⑧중일 쌍방 대립으로 발전 ⑨하야시 펑톈 총영사가 중극측에 엄중항의해 양쪽 경관대(警官隊)는 철수하고 공

www.kci.go.kr

사 재개 ⑩중국농민 5백여명이 농장을 습격해 수로를 파괴하고, 이에 격분한 조선농민 2백명은 2일 아침 중국농민과 대충돌을 일으켰다 ⑪중국농민의 발포로 사태 악화 ⑫그들 중 수십명은 중국 사복순경으로 이번 충돌사건의 배후에는 중국관헌이 있다 ⑬이미 2~3일 전에 창춘시정부에서는 일본인 신문기자와의 면담을 금지하고 진저우(錦州)로 떠난 것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⑭창춘영사관 수비대 및 경찰은 응급대책으로 군대출동을 고려했으나 실행하지 않고 사태를 지켜보는 중이다.

본 기사에서 '만보산 사건'의 배경으로 설명되는 사항 중에 만보산 일대가 미개간지이지만 중국농민들은 관심이 없고 조선농민이 개간할 것을 환영한다(③)는 서술과 인용에서 확인되는 "조선농민에 대한 중국측 관헌의 압박"으로 "천애고아 마냥 내몰리고 학대 받던 이들"이라는 서술은 만보산 사건뿐 아니라 일본에서 재만조선인에 대해 유통된 담론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측의 재만조선인 압박 의도에 대한 서술(④)과 사건의 배후에 중국관헌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⑫,⑬)은 본 기사의 특징적인 서술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재만조선인을 '보호'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와 일본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술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사가 사실을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문기사에 비해 잡지기사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작가이자 노동운동가이며, 평양에서 신문기자를 한 경력도 있는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는 만보산 사건 이후 조선에서 배화사건이 일어났다는 호외를 보자마다 그날 밤으로 조선으로 건너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후 『개조』 8월호에 「만주에 떠도는 조선인(滿洲に漂泊ふ朝鮮人)」이라는 기사를 기고한다.[2] 나카니시는 평양에서 직접 군중들이 중국인과 그 가옥을 습격하는 현장과 소동 후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화난 코리아(怒れるコレア)'의 옆얼굴」이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보고한다.[3] 이어서 조선인들이 중국을 이렇게 증오

2)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이외에도 '만보산 사건'과 관련하여 「만보산 사건과 선농(万宝山事件と鮮農)」(『중앙공론』, 1931.8), 「비참하도다! 재만조선동포(惨たり)! 在滿朝鮮同胞)」(『중앙공론』, 1931.12) 등을 발표했다.

하게 되기까지의 배경을 만주에서 이주한 조선농민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서 찾는다. 특히 펑톈협약(1925년)[4] 과 이중국적 문제를 '지극히 불합리한 법률의 압제'로 보고, 중국관헌과 지주는 물론 일본정부에도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 고유한 일본인－이상한 말이지만－은 황량한 만주 오지에 들어가 영주하면서 처녀지를 개척할 용기도 집착력도 없다. 그러나 선농들이야말로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중략…) 이 사람들이 영주할 각오로 토지를 사서 점차적으로 만주에 세력을 키워가고, 그 배후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무력이 옹호하고 있다고 한다면 범에 날개다. 하루 빨리 그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못 한 채 단지 생활의 안전을 찾아 이주해 온 선농에게는 황당한 재난이다. 그들은 이제 가령 귀화한다 해도 일본 국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토지소유권은 물론 소작계약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부당한 펑톈협약의 위협을 받아 곳곳에서 박해받고 추방당하면서 일가는 길바닥에서 굶주리는 참담한 낙담의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5](밑줄 인용자)

밑줄 친 부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나카니시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면서도 재만조선인의 현재 상황이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압박받는 재만조선인을 위해 외교적, 법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만주사변을 직전으로 하여, 당시 재만조선인이 처한 현실의 문제들과 그 배경, 해결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보여주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나카니시의 시선과 서술은 그가 이 글의 부기(附記)에서 "앞으로도 나는 과감하게 피압계급인 제(諸)민족, 프롤레타리아 농민을 위해 싸울 것을 성명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그의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것으로 앞

3) 글 마지막에 "7월 11일, 조선에서"라고 되어 있다.
4) 「불령선인 규제방법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펑톈성 간의 협정(不逞鮮人の取締方に關する朝鮮總督府奉天省間の協定)」, 이른바 미쓰야협정(三矢協定).
5) 中西伊之助, 1931.8, 「滿洲に漂泊ふ朝鮮人」『改造』, 177쪽.

서 살펴 본 기사들과는 다른 위치에 입각해 만보산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만보산」의 이토 에이노스케와 『개간』의 장혁주

이미 언급한 대로 만보산 사건을 다룬 대표적인 일본어소설에는 이토 에이노스케의 「만보산」과 장혁주의 『개간』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신문기사나 잡지기사와 달리 소설은 허구성과 진실성을 모두 전제로 하는 장르적 특징이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의 허구는 '거짓'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 진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자가 창조해 내는 구조물로, 따라서 소설에서의 허구성과 진실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창작된 소설이든 전적으로 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소설이든, 그러한 소설세계를 창조하는 작가는 작가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 발을 딛고 서서 그 현실세계와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서사체[text]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작자가 채용해서 서술하고, 또 어떠한 허구들을 만들어내는가가 다른 장르의 텍스트에서 보다 더 의식적일 수밖에 없고, 작품의 주제를 구성해 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작자가 '무의식적으로' 채용하는 사실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허구를 통해서도 텍스트는 서술되고 독자는 이를 통해 작품세계를 재구성해서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토 에이노스케와 장혁주는 각각 어떠한 현실세계에 기반하여 「만보산」과 『개간』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발을 딛고 있었던 현실세계에 대한 검토는 그들이 구성해 낸 '만보산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그들의 작가적 행보,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문단의 상황, 나아가 그들이 살던 시대적 상황이 바로 그 '현실세계'에 해당

www.kci.go.kr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토 에이노스케의 「만보산」은 현지에 가 본 적이 없는 이토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쓴 단편소설로, 그 안에는 일본과 조선, 중국의 긴장관계와 그 사이에서 고통 받는 비참한 조선농민의 생태가 신감각파적인 문체로 응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1903년 일본 동북지방 아키타 시(秋田市)에서 태어난 이토 에이노스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 하고, 은행, 신문교정 등을 전전하다가 21세에 가네코 요분(金子洋文)에게 의지하여 상경하였고, 문예평론가로 데뷔한다. 가네코는 1921년에 사회주의사상 문예잡지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을 창간하였고, 이토가 상경할 당시인 1924년에는 이를 계승하는 후속지 『문예전선(文芸戰線)』을 창간한 인물이다. 이토는 상경 직후 한달 동안 가네코의 집에 얹혀 살았고, 옆집에는 나카니시 이노스케, 같은 동네에 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 등이 살았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토는 데뷔 초기에는 노농예술가연맹(勞農藝術家聯盟)[6]계열의 『문예전선(文芸戰線)』보다는 신감각파(新感覺派)[7] 계열의 『문예시대(文芸時代)』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는데, 후에 그는 "자신의 소질과 작가로서의 자각을 냉정히 돌아 볼 정도의 나이에 이르지 못 했던 나는 신감각파를 통해 주어진 그러한 임무(해설자로서의 역할 : 역자주)까지 분명히 자각하지 못 했던 것 같다"[8]고 회상하고 있다. 1928년에는 정식으로 노농예술가연맹에 참가하면서

6) 노농예술가연맹은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활동했던 프롤레타리아문학 단체이다. 1926년 일본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 결성 이후, 소속 문학자들은 정치운동의 한 형태로 문학활동을 전개해 간다. 그러나 얼마 후 프롤레타리아 예술과 사회변혁 실천운동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예술이 운동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 한 멤버들은 일본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에서 배제된다. 그렇게 배제된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 하야마 가타이(葉山嘉樹), 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 등이 1927년 7월에 새롭게 결성한 단체가 노농예술가연맹이다.

7) 일본의 다이쇼(大正)말기에서 쇼와(昭和)초기에 걸쳐 잡지『문예시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신진작가 그룹이다. 외부 현실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지적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현실을 감각적으로 창조하려 하였다.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가타오카 뎃페이(片岡鐵兵) 등 전전과 전중, 전후의 일본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다수 포함된다. 자연주의 리얼리즘문학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이 공유되었고, 프롤레타리아문학과 함께 일본 모더니즘문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본격적인 프롤레타리아문학 작가의 길을 걷는다. 이때 같은 그룹에 나카니시 이노스케도 있었다. 이토는 노농예술가연맹 가입 이후 금융공황을 제재로 한 「공황(恐慌)」(1929.11), 타이완 농민을 그린 「총독부 모범 죽림(總督府模範竹林)」(1930.11) 등 몇 편의 작품을 『문예전선』에 발표하는데, 「총독부 모범 죽림」은 이듬해에 발표한 「만보산」,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이 된 「부엉이(梟)」(1936)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당시 이토의 관심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광산(見えない鉱山)」, 「산의 한 페이지(山の一頁)」, 「폭동(暴動)」으로 이어지는 광산소설 이후 햇수로 2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식민지에 관한 문헌을 읽으며 재료를 찾았고, 타이완을 비롯하여 만주에서 조선에 걸친 식민지소설을 네다섯 편 썼다"[9]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식민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본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예술대중화에 관한 결의」(1930년 7월)에서 식민지문제를 다루어야 할 제재로 제기한 것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토는 단순히 식민지문제를 다룬 소설을 일본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의 방침에 맞춰서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도 빈곤한 생활 중에 그의 식민지 관련 소설을 읽고 찾아 온 조선인 "이군(李君)"을 식솔로 거두는 일도 있었다.[10] 따라서 "이토의 식민지소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의 국제적 연대라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었고, 좁은 의미에서는 식민지작가나 식민지출신자와의 접촉, 식민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운동에 기인한 식민지에 대한 관심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다"[11]는 양지징(楊智景)의 분석은 적확하다고 하겠다.

1932년 노농예술가연맹 해산 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쇠퇴기를 맞고 이토도 침묵의 시간을 보내다가 창작활동을 재기한 작품이 「부엉이」이다. 이어서 조류물(鳥類物)로 불리는 작품들을 발표하는데 주로 일본 동북지방 농민들의 무지와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으로, 이후 독자적인 '농민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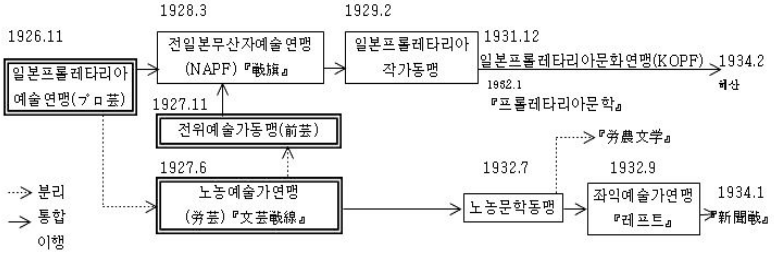
8) 伊藤永之介, 1939, 「文學的自術伝」『作家の手帳』, 金星堂, 188쪽.
9) 앞의 책, 196쪽.
10) 앞의 책, 195쪽.
11) 楊智景, 2008, 「<搾取>への思考―伊藤永之介」, 『植民地文化研究』第7号, 204쪽.

www.kci.go.kr

을 개척해 갔다.

일본에서는 1929년의 농업공황이 일어나고, 이어서 「만보산」이 발표된 1931년에는 일본 동북지방과 홋카이도에서 대흉작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이토 에이노스케는 기근에 신음하는 농촌으로 눈을 돌리고, 「봄은 멀다(春遠し)」(『일본국민』), 「채초지(採草地)」(『레프트』), 「비상시(非常時)」(『근대』), 「곰(熊)」(발표지 불명) 등 흉작을 제재로 한 작품을 썼다.

1932년 노농예술가연맹이 해산하고 산하 문학단체가 분열하자 이토는 아오노 스에키치, 가네코 요분, 쓰루타 도모아(鶴田知也) 등과 함께 행동한다. 1932년 봄에 있었던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KOPF) 탄압은 노농예술가연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토 에이노스케 개인에게는 점차 잡지에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사라져가는 환경이 되었다. 덕분에 1934년 『신문전(新文戰)』이 발표되자 그는 12월호로 종간되기까지 거의 매호마다 정력적으로 소설이나 평론을 기고하고 있다.[12]



일본문단에서는 1924년에 인민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문예연맹이 성립하는데 바로 이 단체가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의 첫 걸음이다. 이 조직은 1926년에 일본 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으로 바뀐다. 이

12) 이토 에이노스케의 전기적인 정보는 주석8)에서 언급한 이토의 자전 에세이와 사가 이쿠로(佐賀郁朗)의 『受難の昭和文學—伊藤永之介と丸山義二、和田伝』(日本経濟評論社, 2003)를 참조로 했다.

는 아나키스트를 제외하면서 논리적, 사상적 입장은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어서 1927년 6월, 후쿠모토주의(福本主義)의 영향으로 대립이 일어나 분열되고, 노농예술가연맹이 결성되었다. 후쿠모토주의는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계급의식의 성장을 중시하는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혁명적 분자의 계급의식을 외부에서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이토 에이노스케가 속한 노농예술가연맹 그룹은 사상적 리더들이 운동을 선도하는 노선이 아닌, 노동자·농민들의 자발적인 계급의식 각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후 1927년 11월에는 노농예술가연맹 내에서도 야마카와파와 그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투쟁이 일어나고, 비합적으로 재건된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전위예술가동맹을 결성하여,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계의 3대 그룹이 성립하게 된다.

이상의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계의 그룹의 흐름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일본 문단, 그 중에서도 프롤레타리아문학 그룹 내에서의 이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그가 입각하고 있는 인민주의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혁주의 『개간』은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지 12년 후, 작가의 현지답사와 치밀한 조사(『리튼 보고서』를 포함한다[13])를 바탕으로 쓰여진 실록 다큐멘터리 같은 장편소설이다. "표면상 이 작품은 역시 '국책소설' 안에 넣을 수밖에 없지만, 중립적 시점에 근거한 다면적 묘사나 구성력 등의 점에서는 상당한 수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14]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중일의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해 복잡한 갈등구조를 보여준다.

1905년 대구에서 태어난 장혁주는 일본의 일급 종합잡지 『개조』의 제5회 현상창작공모에 단편소설 「아귀도(餓鬼道)」가 2등으로 입선하면서 일본 문단

13) 장혁주의 『개간』이 『리튼 보고서』를 참고한 흔적에 관해서는 아타나베 나오키(渡辺直紀)의 「張赫宙の長編小説『開墾』(1943)について」(『현대문학의 연구』, 2008) 121~25쪽 참조.
14) 白川豊, 2000, 「張赫宙作『開墾』(解説)」 『開墾』 復刻版, ゆまに書房.

에 정식 데뷔한다. 일본 중앙문단에 식민지 출신 작가가 데뷔한 것은 장혁주가 처음이었다. 당시 장혁주는 경상북도 북부와 대구의 보통학교에서 대용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1936년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하고, 1938년에는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와 함께 『춘향전』 순회공연에 참가해 일본어판 각본을 집필한다.

「아귀도」를 전후로 하여 장혁주는 비슷한 경향, 즉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린 일본어 작품들을 차례차례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포플러(白楊木)」(1930.10), 「박전농장(迫田農場)」(1932.6), 「쫓기는 사람들(追はれる人々)」(1932.10), 「분기하는 자(奮ひ起た者)」(1933.9) 등이 있다. 이러한 소설들은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것들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장혁주의 작품은 늘 삭제와 복자(伏字) 투성이인 채로 실렸을 뿐 아니라, 게제지 『개조』와 『문예수도(文芸首都)』는 발행금지 처분을 당했다. 장혁주가 등단 당시 밝혔던 일본어를 통해서 "민중의 비참한 생활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 싶다. 호소하고 싶다"(1933)라는 포부나 "일본문학계에서 발표하는 것이 조선에서 쓰는 것보다 검열이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15]이라는 일본문단에서 활동하는 이유도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1936년 7월 '장혁주 환영회'가 일본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과 진보적 작가가 모인 문학안내사 주최로 긴자(銀座)에서 열릴 정도로 장혁주는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계열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일본 문단에 편입되지만, 끝까지 동맹에 가입하는 일은 없었다.

데뷔 초기에 위에서 언급한 동반자문학의 경향이 강한 작품을 창작하던 장혁주는 점차 조선사회의 현실을 식민지비판 보다는 전근대・봉건주의에 대한 비판과 인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을 썼고, 허구성이 짙은

15) 「쫓기는 사람들」이 『가이조』 관계자 오오시마 요시오(大島義夫)에 의해 에스페란토어로 번역되었을 때(1933), 에스페란토어판에 실린 「자술약전」(自述略傳)의 일부로,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解説―「追われる人々」をめぐって」『張赫宙日本語作品集』의 일본어역을 참고로 했다. 앞부분부터 일본어역을 인용하자면 「当初から私は日本の文壇に入ろうと思っていた。その主な理由は教育されてきたお蔭で私の言語能力は日本語のほうが朝鮮語より優れていたし、それと日本の文學界で發表した方が朝鮮で書くより檢閲が寛大なものだろうと考えたからである」이다.

작품 보다는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무라야마 도모요시와 작업한「춘향전」공연이도쿄 쓰키지(築地)극장을 비롯해 일본 각지에서 갈채를 받으면서, 장혁주는 일약 유명작가의 대열에 서게 된다.

장혁주는 1939년부터 1945년에 걸쳐 총 4번의 만주여행을 하는데, 첫 만주행을 즈음하여 쓴 소설로「빙해(氷解)」가 있다. 이 단편소설은 장혁주의 첫 국책 프로파간다 문학으로 볼 수 있는데, 만주의 중국인농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빙해」를 포함한 장혁주의 만주배경 소설 9편 중『개간』은 7번째 작품에 해당한다. 또한 그의 만주배경 소설은 대부분이 국책소설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시류 편입적인 것들이었다.

이상으로 '만보산 사건'을 모티프로 한 두 소설,「만보산」과『개간』의 작가들에 대해 살펴봤다.「만보산」집필은 이토 에이노스케가 본격적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창작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루어졌고, 이는 일본의 문단적 상황과도 일치한다. 그에 비해『개간』은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데뷔한 장혁주가 국책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던 시기에 집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일본 농촌 출신으로 도쿄에 상경하여 긴 기간을 가난 속에서 문학생활을 해 가던 이토 에이노스케와 처음으로 일본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한 식민지 출신 작가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은 '조선 출신 작가'라는 틀 안에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 받았던 장혁주는 처해 있는 입장도, 요구되는 역할도, 각자가 느끼는 문학적 관심과 주제의식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4. 농민문학「만보산」과 개척문학『개간』

1931년 10월『개조』에「만보산」이 발표된 것은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후였다. 이야기는 일본인 지주에게 저당 잡힌 땅을 빼앗기고

www.kci.go.kr

만주로 흘러들어간 조선인 농부 조판세와 그의 처 배정화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조판세와 비슷한 처지의 조선농민들이 만보산 일대에 모여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전개발을 위해 수로공사를 한창 하다가 성정부의 방침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었고, 공사를 재개하자 중국 병사, 중국 농민 들이 차례로 와서 위협하고 발포하기에 이른다. 이에 항의하던 조판세는 중국 병사에게 끌려갔다가 한참 후에 가까스로 수십리를 걸어서 돌아오고, 그 사이에 배정화는 집주인에게 집을 내몰렸으며, 조판세가 돌아온 날 아들 태수는 역병으로 죽는다. 조선농민들이 다시 수로 보막이 공사를 하지만 중국농민과 병사들의 습격으로 조선농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다시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이처럼 「만보산」은 만주에서 조선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겪는 갖가지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만보산 사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불과 2~3개월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재구성한 작가의 창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사실성 보다는 사실과 허구로 구성된 작품세계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만보산」이라는 서사체가 갖는 특징은 단순한 사건의 기술만이 아니라, 왜 조선농민들이 만주로 '쫓겨'올 수밖에 없었으며, 왜 중국에서 조선농민들을 박해하는지 그 원인을 추구하는 데에까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 문단의 분위기에 따라 식민지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토 에이노스케는 만주라는 타지에서 지주에게 착취당하고 권력에 의해 박해 받는 조선농민을 그리려 했고, 이는 일본농민과 조선농민의 연대라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방향에 맞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계급적 착취구조와 더불어, 제국과 식민지라는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는 피식민지인이라는 이중의 착취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www.kci.go.kr

——선농(鮮農)의 배후에는 ××이 있다. 지나(支那)에 귀화한 선농 명의로

×××이 밭을 사들였다 만몽백수만의 선농을 앞잡이로 하여 ××은 점차 방대한 토지를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그러나 ××은 ××이 어떤 ××를 받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탕빙(當兵)이 ××을 때리고 차면, ××은 가장 두려워하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도 ××이 좋아하도록 공산당단속을 빌미로 ××을 광야로 내몰고 감방에 처넣는다.[16]

복자 처리로 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본' '박해' '선농' 등의 단어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조선인 이민자들의 배후에는 '일본'이 있고, 귀화한 조선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일본'은 만주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조선인농민'들이 어떠한 '압박'이나 '박해'를 받아도 모른 척한다. 오히려 중국군이 '조선인농민'들을 괴롭히면 '일본'은 '신민보호'를 이유로 군사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중국'은 그러한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산당 단속을 빌미로 '조선농민'들을 몰아내거나 잡아가는 것이라는 정도로 이 부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만보산」에 드러난 스토리상에서는 무자비하고 교활하게 조선인들을 압박하는 중국인과 조선인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일본이지만, 스토리의 이면에서는 조선의 백성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국경을 헤매면서" 만주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끝없는 만주의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 게 되는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제국 확장을 위한 만주침략이라는 비판이 복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만보산」이 당시에도 현재에도 평가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복자의 복원은 독자의 유추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유추는 당시 본 작품을 읽었던 문학자들도 가능했던 것 같다. 우노 고지(宇野浩二)는 다음과 같은 감상평을 남기고 있다.

16) 『改造』판 139~140쪽. 新潮社판『鴉』(1939)에는 "그 결과 선농은 어디까지고 계속 쫓겨갔다. 지주에게 고향을 쫓겨 국경을 넘은 그들은 여기에서는 탕빙의 총에 쫓겨 다녔다. 정착하는 곳곳마다 집요하게 좇아왔다"라고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 이 작품에는 조선인 백성 일가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던 고향을 등지고 헤맬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그려져 있다. (…중략…) 백의의 무리가 황량한 만주의 자연과 싸우며, 교활한 중국인에게 박해를 받거나 ××한 ××인에게 압박을 받으며, 때로는 포화와 총성과 마병들의 말발굽 소리에 위협받으며, 실로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위협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생활이 아니다)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 작품은 최근 내가 읽은 소설 중 가장 심금을 울린 작품의 하나이다.[17]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 복자로 되어 있으나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이 등장하는 소설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이미 언급되었다면 "××한 ××인"은 '일본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텍스트는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서 피식민지의 조선의 농민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본국에서 압박받는 농민과의 연대를 노리면서도 중국농민과의 연대는 시도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18] 그렇기는 하지만 「만보산」은 몇 중으로 압박 받는 재만조선인 들을 그림으로써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말한 "앞으로도 나는 과감하게 피압계급인 제(諸)민족, 프롤레타리아 농민을 위해 싸울 것을 성명한다"는 의지가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작품은 프롤레타리아문학 계열의 농민문학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토 에이노스케 본인은 본 작품을 포함한 당시의 프롤레타리아문학 계열의 농민문학에 대판 평가를 그다지 좋게 하고 있지 않다. 1939년에 그 자신의 작가 생활과 문학론과 관련된 글을 엮어서 발표한 『작가수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러한 독자나 사회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작품이 없다면 농민문학은 현실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중략…) 그러나 그 농민작가들

17) 宇野浩二, 1931.11, 「文學の眺望」『改造』, 45쪽.
18) 노상래, 2009.12, 「소설로 분광된 '만보산 사건' 읽기—이토 에노스케(伊藤永之介)의 「만보산」을 중심으로」『인문연구』57호, 407~410쪽 참조.

www.kci.go.kr

> 이 아직 농민문학에 대한 독자와 사회의 요구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작품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많은 작가들이 이전의 농민문학이나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한 부분으로의 농민문학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농경민들 사이에도 충분히 문학적 표현을 익힌 작가가 나올 정도로 농촌의 문화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19]

즉, "이전의 농민문학",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한 부분으로의 농민문학"은 1939년의 시점에서는 '벗어나야 할' 문학인 것이다. 그에 비해 그가 추구하는 농민문학은 "농경민들 사이에도 충분히 문학적 표현을 익힌 작가가 나올 정도로 농촌의 문화수준이 올라가"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쓴 것"을 통해 "문학계의 표면에 부상할 정도로" "문학적 교양도 기술도 높"은 문학이다. 이토는 노농예술가연맹 그룹이 추구하던 노동자·농민들의 자발적인 계급의식의 각성을 정치적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문화 발전의 한 형태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혁주는 『개간』의 「후기(後記)」에서 "장학량 군벌의 항일 정책에 따른 우리 이주농민에 대한 부당 대우, 새로운 개간지에서 일어난, 나중에 '만보산 사건'으로 알려진 충돌사건, 그리고 만주국 건국 이후의 밝은 건설 모습"의 세 단계를 그렸다고 작품 구성을 밝히고 있다. 이 「후기」에 실린 말이야말로 『개간』을 국책 프로파간다문학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주국 이전의 만주는 부정과 폭력, 비합리가 횡행하던 공간, 특히 일본인이자 조선인인 이주민들에게는 수난의 공간이었다.

> 그들의 30년에 걸친 개간사에 기록될 피맺힌 참사는 이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하여 차례차례 폭로되었다. 그리고 만보산 사건보다도 수십배인 선농압박의 진상이 밝혀졌지만, 나중에 국제연맹 조사원은 일본에 불리한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 선농의 이러한 불쌍한 실정에는 눈을 주지 않았다.
>
> 이러한 부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조선내의 사람들

19) 伊藤永之介, 「農民文學の現狀」 『作家の手帳』, 122쪽.

www.kci.go.kr

> 이 종래의 우호적인 애정으로 접하던 종래 우호적인 애정으로 접하던 중국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20]

위 인용에서는 작자의 만보산 사건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제연맹이 조사한 리턴 보고서는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전역에서 빈번했던 중일 충돌이나 간도를 포함한 만주에 있는 중일간의 이해관계를 역사적으로 규명했고, 그 가운데 만보산 사건에도 눈을 돌렸다. 조사위원회는 만보산 사건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정도의 심각성이 없고 그 후 조선에서 발생한 중국인 배척 운동이나 중국의 배일 운동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21]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위 인용의 작자는 만주를 둘러싼 중일 양국간의 대립과 그 사이에 놓인 조선인이라는 역사적 맥락은 무시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부당행위로 보면서, 심지어는 조선에서 일어난 배화사건까지 그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소설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삽입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선택에까지 유지된다.

> 이 사건(만보산 사건 : 인용자주) 직후에 일어난 각지의 대일(對日)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됐다. 7월부터 8월에 걸쳐 일어난 사건 중에 주요한 것들을 들어 보면 이렇다.
>
> 하얼빈 조선인 소학생이 중국인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1명 부상.
>
> 쑤이와(綏化)에서 선농 40호가 중국인 지주의 탄압을 받아 추방당했다.
>
> 동지나철도 남부선 타오라이자오(陶賴昭) 부근 선농이 중국관헌에게 추방당했다.
>
>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오지 선농경영의 용수로를 폭민(暴民)이 파괴했다.
>
>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짐마차 30수대에 선농 백명을 묶어서 성내(城內)로 압송. 죄명은 통비(通匪)로 그 중에는 12~3살의 아이도 섞여 있었다.

---

20) 張赫宙,『開墾—万宝山部落建設記』(中央公論, 1943.4) / 白川豊監修·解說,『日本植民地文學選集・朝鮮編 3』(ゆまに書房, 2000)에 실린 영인판(이하 張赫宙,『開墾』로 표기), 299쪽.

21) 고바야시 레이코, 2011,「만보산 사건과 리턴 보고서 – 재만 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만보산 사건의 역사적・문학적 성찰』(만주학회 만보산 사건 80주년 학술회의 자료집)에서 인용.

장쭤샹(張作相)은 일본이 배척에 대한 훈령을 내렸다.

둔화(敦化)에서는 천명의 군중이 만보산 사건 보복을 부르짖으며 가두시위 행진을 했다.

난징(南京)시 당부는 만보산 사건에 대해 전국에 통전하고, 대일 영구 경제단교 즉시 실행을 결의했다.[22]

위 서술은 실제하는 구체적인 지명과 사건들을 나열함으로써 이 텍스트가 자못 허구가 아닌 사실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내지는 현장 리포트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위에 나열된 사건들은 중일 양국의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중국의 조선인에 대한 '횡포'에 관련된 내용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본 배척만을 들고 있어 중국측의 비논리성과 부당함 강조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핍박받고 있는 재만조선인들은 척박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

각 도시에서 배일 시위가 날로 작렬하게 됨에 따라서 질이 좋지 않은 소문이 그들을 어두운 불안의 도가니로 가두었다. 그 중에서도 음력 8월 14일 추석 전날을 신호로 발발하는 항일 대음모가 착실히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그럴싸하게 전해졌다. 그날 전만(全滿)의 원주민은 각자의 책임으로 일본인, 특히 선농을 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은 독이 든 만토(饅頭)를 이용하든 창이나 총을 이용하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만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모습을 지워버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삼성 일행은 설마 그런 잔인한 일이 있을까, 불과 지난달에 그들이 겪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흘려들으려 했다. 그들과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선량한 얼굴을 봐서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23]

장편소설『개간』의 서술 어디에도 중국인들이 일본을 배척하고 조선인을 압박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단지 땅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22) 앞의 책, 297쪽.
23) 앞의 책, 299~300쪽.

www.kci.go.kr

인한 갈등만이 존재할 뿐이고, 논리가 결여된 잔인한 배타성만이 그려진다.

사건이 수습되고 만주국이 건국된 이후를 그리고 있는 11장에서는 삼성의 결혼식과 학교의 설립, 묘지 이장 등 만주 정착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는 희망적인 장면으로 조선인들이 이퉁허(伊通河) 기슭에 정착해 간다는 이야기로 소설은 맺어진다. 이제부터 '왕도락토'와 '민족협화'을 슬로건으로 일본이 지도하는 '유토피아' 만주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러한 '만주국'은 바로 일본제국이 추구하는 만주국 상이고, 바로 그러한 '유토피아'를 조선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함께 건설해 가려는 의지가 서술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조선인에 의한 만주국 프로파간다 소설이 된다.

> 여기 원주민들의 손에 맡겨두면 천만년이 지나도 불모지로 버려져 있을 늪지와 습지를 옥토로 바꾸려는 자신들이 이 나라(중화민국) 정부에 상을 받을 이유는 있어도 이렇게 꺼려질 이유는 없다.[24]

중국인들이 못하는 수전개발을 조선농민의 손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불모지가 옥토로 바뀐다는 믿음과 "개간지에 갈 때마다 조우하는 고난이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간을 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용기"[25]를 자부하며 조선농민은 만보산을 개척한 것이다. 동양적인 농본정신에 따라[王道] 옥토[樂土]를 만드는 데 조선민족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民族協和]는 만주국의 이상을, 재만조선인들은 역경 속에서 '만보산부락 건설'을 통해 이루어 냈다는 서술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작품은 국책 프로판간다인 대륙개척소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장혁주의 국책문학은 만주개척과 관련된 작품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빙해」가 그 첫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장혁주가 어떠한 경로로 대륙개척

24) 앞의 책, 93~4쪽.
25) 앞의 책, 290쪽.

www.kci.go.kr

국책문학을 쓰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빙해」와 『개간』은 소설 길이에 따른 구성의 차이, 사건 발생 시간과 집필 시점 사이의 거리, 재만조선인의 위치와 한중일간 갈등 구조, 작가의 체험과 사실성 여부 등의 상이점도 무수히 존재하지만, 장혁주가 만주 개척을 소재로 쓴 국책소설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충분히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왜 조선출신이자 일본어문학 작가인 장혁주가 만주와 개척을 서술하기 시작하고 계속 서술해 가는가, 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장혁주가 「빙해」를 집필하게 된 배경은 국책문학단체인 대륙개척문예 간화회(大陸開拓文芸懇話會)가 1939년 2월에 발족되고 장혁주는 그 단체에 유일한 '외지인'으로 참가하여, 간화회 발족 직후인 2월 18일, 이바라키현 우치하라(茨城縣內原)에 있는 만몽개척 청소년의용군 내지훈련소(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內地訓練所)를 방문한 것이다. 그의 첫 만주행 4개월 전이다.[26] 우치하라의 의용군훈련소를 다녀온 후 참가한 좌담회에서 "소년의용군이 만주에 갔다고 신문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민족협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우치하라에 가 보니 소년은 소년으로서 신념에 불타고 있었"[27]다고 말하며, 그것을 본 장혁주는 작가들이 "그들 이민하는 소년들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28] 뒤처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본주의자 가토 간지(加藤完治)의 철저한 정신교육으로 무장된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의 신념에 감화된 것이다.

「빙해」는 중국인농민인 주인공 王三이 마을에 들어온 의용군소년들을 보고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조선농민과 화해했던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일본 소년들과 일본군에 대한 오해를 풀어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26) 작품 발표는 장혁주가 만주에 체류하던 1939년 7월이다. 이에 관한 사항은 졸고, 「장혁주의 「氷解」에서 보는 국책과 조선인—'빙해'를 중개하는 朝鮮人(코레이) 이야기」(『일본학보』, 2008.7) 참조.

27) 滿洲移住協會, 1939.4, 「作家の座談會　義勇軍を語る」『新滿洲』第三卷第四号, 47~8쪽.

28) 「國策文學檢討座談會④日支農村の現狀 / 農業移民への示唆」, 1939.6.16, 2쪽. 「國策文學檢討座談會」(『讀賣新聞』, 1938.6.13~18,21,22. 전8회 연재)출석자는 石川達三, 丹羽文雄, 尾崎士郎, 丸山義二, 榊山潤, 新居格, 張赫宙, 高見順, 間宮茂輔 芹澤光治良.

은 중국과 일본의 '빙해'를 박해 받던 재만조선농민들이 매개했다는 서술이다. 이러한 스토리성은 『개간』에서 조선농민들이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억세게 살아남아 만주를 개척하고, 옥토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만주국 건국 신화' 속의 조선인의 역할과도 관계 된다. 장혁주는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의 공간에서 조선인들이, 그리고 조선출신으로서의 작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고, 일련의 만주소설들을 통해 계속 그 방법을 형상화해 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만보산」과 『개간』의 장르적 분류된 명칭을 환기해 보면 「만보산」은 농민문학, 『개간』은 개척문학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 농민문학은 저항의 성격이 강한 프롤레타리아문학 범주에 속하고 개척문학은 대륙으로의 팽창이라는 제국의 정책을 선동하는 국책문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개척문학과 농민문학은 전혀 다른 성격의 작품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1939년 2월에 대륙개척문예간화회가 발족하기에 앞서 1938년 11월에 농민문학간화회(農民文學懇話會)라는 국책문학단체가 먼저 출범한다. 일본의 국책문학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결성된 것이다. 농민문학도 국책문학으로 편입되었고, 이는 전쟁의 장기화와 총력전체제 속에서 '생산증식'이라는 담론 생산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문학사상의 흐름을 보면, 개척문학 또는 대륙개척문학은 농민문학의 한 지류로 발생하여 발달했다.

메이지(明治 : 1868~1912) 말기 이후 일본에 근대문학이 탄생한다. 당시 일본경제는 농업이 주체였고 압도적으로 농촌사회였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도시생활 가운데 신변적인 것들을 그린 사소설에 편중되어 농촌·농민을 그린 작품은 극히 적었다. 그러다 다이쇼(大正 : 1912~1926) 말기에 들어서면 반도회주의(反都會主義), 중농주의(重農主義)를 표방한 문학을 제창하는 문학자 그룹이 등장하면서 그 주장을 펼치는 출판물이 간행되었다.

한편, 제1차 대전 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가 빈번

www.kci.go.kr

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민중문학운동이 생겨난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으로 계승되었고, 주로 광산이나 공장의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지주제도에 신음하는 농민을 그리는 것이 큰 테마였다. 그와 더불어 쇼와(昭和 : 1926~1989) 초기 세계대공황에 기인한 농산물가격 폭락과 흉작으로 인한 농촌의 비참한 실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각기 다른 입장의 작가들이 앞다투어 농촌과 농민을 제재로 하여 소설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농민과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지주와 소작농, 생산자와 산지상인이라는 대립, 농지를 둘러싼 다툼, 낡은 규율과 가족제도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그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흉작에 신음하는 농민의 실태 등을 농민의 입장에서 그린 작품을 농민문학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시기가 이토 에이노스케가 농민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이다.

1931년 9월, 일본은 만주에서 침략전쟁을 개시하였고, 전쟁에 반대하고 천황제를 비판하던 공산주의자를 비롯해 많은 지식인, 노동자가 검거·투옥됐다. 이때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었던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의 주요 멤버도 검거된다.

이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은 해산을 하게 되었고, 작가들은 탄압을 피하기 위해 창작대상을 다시 농업·농민에서 구한다. 시마키 겐사쿠(島木健作)의 『생활의 탐구(生活の探求)』(1937)는 농민운동에 좌절한 후 농촌에서 살아가려는 청년을 그린 '전향문학'의 전형으로, 1930년대 후반에는 농촌 구제와 존황애국(尊皇愛國)이 결탁된 농본주의 사상이 대두되어 사회주의사상의 탄압으로 전향하게 된 지식인들이 '고향'(土의 세계, 農의 세계)에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1935년에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외래 근대사상을 비판하고 향토 일본으로의 회귀를 표방하는 일본낭만파도 나타났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출판계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한 국책에 편승하여 농민문학과 흙의 문학을 내려는 풍조가 강했고, 이는 다시 대륙개척

www.kci.go.kr

국책으로 이어져 개척문학이 1940년대 프로파간다 문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29]

농민문학이 없었다면 개척문학은 발전할 수 없었고, 큰 틀에서는 농민문학 안에 개척문학은 포함된다. 노동자로서의 농민에 주목한 프롤레타리아 노농예술연맹 계열의 농민문학과 존황애국의 농본주의 사상에 제국의 팽창주의가 결합하여 발생한 개척문학은 같은 원류에서 출발하여 때로는 중첩되고 때로는 대립하며 전개된 것이다.

'만보산 사건'이라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 흙에 기반하고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두 작품이지만 어느 시대에, 어떠한 맥락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술하는가에 따라 한 작품은 저항적이고 고발적인 농민소설로, 한 작품은 체제협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개척소설로 평가받게 되었다.

5. 맺음말

문학작품은 작가 한 개인의 창작물임과 동시에 시대적 산물이다. 여기서 '시대'는 집필 당시 사회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기술적・사상적 등의 배경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 중에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예사조의 흐름을 비롯한 문단적 상황일 것이다.

'만보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일본어소설 「만보산」과 『개간』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하나는 농민문학, 또 다른 하나는 개척문학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에 비판적인가 협조적인가의 기준만이 아니라 작가가 어떠한 동기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사건'(사실)을 재해석하고 서술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근저에 깔린

www.kci.go.kr

29) 佐賀郁朗, 2003,『受難の昭和文學—伊藤永之介と丸山義二、和田伝』, 日本経濟評論社, 1~3쪽 참조.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프롤레타리아문학 단체들의 전성기에 단체 중앙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식민지문제를 다루면서 일본과 조선 농민들의 연대를 지향하면서도 후쿠모토식의 계몽적 계급의식이 아니라 농민들에 의한 농민들의 문학을 이상으로 했던 이토 에이노스케는 이중으로 고통 받는 만주의 조선인들을 일본제국주의 고발을 통해 그려냈다.

식민지 출신으로 일본 중앙문단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던 장혁주는 조선인으로서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제국 안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였고, 이를 만주를 통해 그리려 하였다. 그러한 모색을 통해 획득된 장혁주의 시선이 이토 에이노스케가 '만보산 사건'을 바라보는 그것보다 더 제국적인 것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굴절된 것이지만, 이 역시도 역사의 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투고일 : 2011년 5월 15일, 심사개시일 : 2011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5월 31일

참고문헌

고바야시 레이코, 2011,「만보산 사건과 리턴 보고서－재만 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만보산 사건의 역사적・문학적 성찰』(만주학회 만보산 사건 80주년 학술회의 자료집).

노상래, 2009.12,「소설로 분광된 '만보산 사건' 읽기—이토 에노스케(伊藤永之介)의「만보산」을 중심으로」『인문연구』.

유수정, 2008.7,「장혁주의「氷解」에서 보는 국책과 조선인—'빙해'를 중개하는 朝鮮人 이야기」『일본학보』57.

伊藤永之介, 1939,『作家の手帳』, 金星堂.

_____, 1931.10,「万宝山」『改造』.

宇野浩二, 1931.11,「文學の眺望」『改造』.

佐賀郁朗, 2003,『受難の昭和文學—伊藤永之介と丸山義二、和田伝』, 日本経濟評論社.

白川豊, 2000,「張赫宙作『開墾』(解說)」『開墾』復刻版, ゆまに書房.

白川豊,「解說—「追われる人々」をめぐって」『張赫宙日本語作品集』.

張赫宙, 1943,『開墾—万宝山部落建設記』, 中央公論 / 白川豊監修·解說, 2000,『日本植民地文學選集·朝鮮編 3』復刻, ゆまに書房.

中西伊之助, 1931.8,「滿洲に漂泊ふ朝鮮人」『改造』.

滿洲移住協會,1939.4,「作家の座談會　義勇軍を語る」『新滿洲』第三卷第四号.

楊智景, 2008,「〈搾取〉への思考—伊藤永之介」『植民地文化研究』第7号.

渡辺直紀, 2008,「張赫宙の長編小說『開墾』(1943)について」『현대문학의 연구』.

『大阪每日新聞』, 1931.6.15,「我警官機關銃を携へ万宝山に急行」.

『東京朝日新聞』, 1931.7.4,「万宝山情勢惡化」.

————————————————,「各地を追はれた鮮農が唯一の活路」.

『讀賣新聞』1939.6.16,2「國策文學檢討座談會④日支農村の現狀 / 農業移民への示唆」.

www.kci.go.kr

■日文要約■

「万宝山」、農民文學と開拓文學

柳 水 晶

本論は、万宝山事件に関連した言説の中でも、日本文壇で生産された小説、伊藤永之介「万宝山」(1931.10)と張赫宙『開墾』(1943.4)を研究対象とする。「万宝山」と『開墾』は同じ題材を扱ったテクストでありながらも、一方は農民文学、もう一方は開拓文学として分類されている。それぞれの作家はどのようなきっかけで、何を目的として「事件」を再解釈し、叙事したのか、そして、その根底にあるイデオロギーは何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万宝山事件を形象化する文学的言説を理解し、「事件」と表象を読み取る重要な基準になるであろう。

本論では、万宝山事件が日本文学でどのように語られたかを考察するに当たって、まず、万宝山事件が日本に報道された例をいくつかの新聞記事を通じて確認し、それから、「万宝山」と『開墾』の作家は、それぞれどのような道を歩んで、またどのような文壇的な状況の下でそれぞれの作品を創作し、どのように語ったかを確認することで、これらの作品がもつ日本文学史における位置と意味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プロレタリア文学団体の全盛期に中央委員会の指導の下、植民地問題に着目し、日本農民と朝鮮農民の連帯を目指しながらも、福本式の啓蒙的階級意識ではなく、農民の農民による文学を理想としていた伊藤永之介は、二重三重の圧迫に苦しむ在満朝鮮人たちを日本の帝国主義を暴くことで描き出した。

一方、植民地出身として日本の中央文壇で「朝鮮人」という理由から注目されていた張赫宙は、朝鮮人としての自分自身が、また自分の民族が、帝国の中で処すべき位置を探し求めた結果、それを「満洲」を通じて描こうとしたのである。そのような努力によって獲得された張赫宙の「万宝山事件」

www.kci.go.kr

を見つめる視線が、伊藤永之介のそれより「帝国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屈折されたアイロニーでもあり、歴史の産物でもあるだろう。

www.kci.go.kr

キー・ワード：万宝山事件、伊藤永之介、張赫宙、万宝山、開墾、農民文学、開拓文学